

“카센터 창고서 자유로운 예술을 꿈꾼다”

그들의 유쾌한 상상

문화판을 바꾸다

(9) 대안공간 RGA

1969~70년 미국 뉴욕 뉴욕 지구에 등장하기 시작한 대안공간은 상업주의와 권위주의에 맞서 자유롭게 실험적인 전시를 꿈꾸던 예술가들이 주축이 됐다. 국내에서는 1997년 서울 홍대에 ‘대안공간 투프’가 문을 열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대안공간들은 예술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상업화에 물든 미술계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젊은 작가 박현진(33)·김은와(여·32)·조은애(여·32)씨가 지난 2007년 광주시 동구 소태동 아이조음 아파트 맞은편에 ‘대안공간RGA’(Real young Gwangju Artists)을 만든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념 있는 예술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RGA의 목적이요, 자본화된 전시나 갤러리에서 탈피해 자유롭게 실험적인 전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갤러리들에서 전시를 하면서 상업화된 예술에 실증을 느꼈던 것이지요. 작가의 예술세계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갤러리에 작가의 작품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저희가 꿈꾸는 것은 자본으로부터의 완전자립입니다.”(현진)

미대를 나온 은와·은애씨와 달리 현진씨는 원래 철학도였다.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준비하면서 미술에 매료돼 붓을 들었다.

대안공간RGA는 현진씨 등이 입주하기 전에는 카센터 창고였다.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번 돈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조명을 다는 등 공간을 새롭게 꾸며 작업실 겸 갤러리로 만들었다. 자신들과 생각이 맞는 작가 누구에게나 개방하겠다는 의도였다. 회원들끼리 자유롭게 전시를 열고, 의견을 공유했고, 점차 자신들의 공간이 있는 소태동과 주민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소태동 거리에서 베품시장을 열었다. 외국처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정기적으로 열리는 베품시장을 만들고 싶어서였다. 회원들이 쓰던 물건과 아트상품을 내다



대안공간 RGA의 김은와·조은애·박현진(사진 왼쪽부터)씨는 획일화된 일상에서 대안을 찾고 싶다고 말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젊은 작가 박현진·김은와·조은애씨

“획일화된 일상서 대안을 찾고 싶어”

팔고, 체험부스를 만들었다. 이전에 광주극장 1.5층에서 비정기적으로 베품시장을 운영했던 것이 경험이 됐다. 처음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다소 미흡했지만 점차 주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14~15일에는 전남대 상대 뒤편에 있는 카페BTC와 손잡고 ‘베품시장+아트마켓’ 행사를 열었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가 소태 베품시장입니다. 소태동은 광주의 끝이나 다름없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곳에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은와)

소태동 골목길 내에 있는 허물어진 벽에 벽화를 그린 것도 RGA가 소태동을 바꾸기 위해 한 일이다.

소태 베품시장·철학교실 등 주민과 호흡

獨 카셀 도큐멘타서 예술의 상업성 비판

주민들이 ‘머글길’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허물어진 채 방치되는 것이 안타까워 자비를 들여 문화를 입혔다. 또 소태동의 시작점이라고 부르는 소태마을에 있는 작은 골목길에서도 ‘골목길 프로젝트’를 진행, 작업 과정과 결과물을 전시하기도 했다.

획일화된 일상에서 대안을 찾고, 틀·제약·규범을 탈피한 예술을 꿈꾸는 RGA는 지난 2012년 독일 카셀 도큐멘타와 같은 해 광주에서 열린 제9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일상저항 프로젝트’를 열기도 했다. 진짜 예술을 찾겠다며 독일로 날아간 그들은 카셀에서 실망감을 느꼈고, 가지고 간 그림 옆서를 무료로 나눠주면서 “예술은 돈이 아니다”를 외쳤다. 또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비엔날

레제단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 나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면 좁은 공간에서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작가의 이념이 드러나는 그런 예술을 하고 싶습니다.”(은애)

RGA는 철학교실, 드로잉교실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과 호흡하고 있다.

“예쁘고, 화려하고, 자극적이지 못하면 어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예술을 하고 싶습니다. 먹고 사는 데 치중하는 예술가, 좁은 공간에서 무엇을 그리는 지도 모르고 작품만 그리는 작가들은 ‘대장장이’, 즉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작품만 그리고 예술에 대한 고민은 철학과 미학 하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보통이지요.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예술을, 그런 예술을 하고 싶습니다.”

RGA 전시 정보 등은 카페(cafe.naver.com/rgart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남도음식 명인에 직접 배워요

전통문화관, 생생문화재사업 선정

남도음식 명인에게 직접 배워보는 남도전통음식 문화 체험 기회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최근 문화재청이 공모한 2014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에서 ‘남도의례음식장 활성화지원 맛있는 전통음식문화’가 선정돼 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맛있는 전통음식문화”사업은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인 최영자·이애섭 선생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남도 전통음식체험(4회), 토요 전통먹거리 무형문화재 시연(7회), 우리가족 세시풍속 음식 체험(4회), 남도향토음식 경연대회(1회) 등 총 18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행사로 17일 전통문화관 무형문화재작품전시장 앞마당에서 광주하게유니버시아드대회 ‘2014광주FISU포럼’에 참가한 세계 각국 대학생 및 행정가 150명을 대상으로 전통음식인 삼색부꾸미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이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해 시민참여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70건이 선정됐다.

문화재청은 특히 광주 남도의례음식장, 서울 신원복종속도 화점(국보 제135호), 경기 현무암협곡(천연기념물 제436호), 강원 감영(사적 제439호) 등을 특별히 관심을 모으는 프로그램으로 지정했다. 문의 062-232-1501.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진도북춤·영남입춤 무대로

목요국악마당, 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시 서구가 주최하는 국악상설 공연 ‘제41회 목요국악마당’이 20일 오후 7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지역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개 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내드름 박병주 대표가 진도북춤을 선보이고, 한나래 전통춤 김영신 대표가 영남입춤을 관객들에게 선물한다.

또 정영을씨의 ‘희망비나리’, 김정숙 명창의 판소리 ‘춘향가’ 중 한 대목, 이정화 명창의 가야금 병창 ‘수궁단가, 갈까부다’ 등으로 무대가 꾸며진다. 마지막 무대는 김정숙·이정화·고현미 명창의 남도민요 ‘육자백이다’.

김영신 대표는 광주여대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전국무용대회 명무부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한나래 전통춤 대표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문의 062-350-4556.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문학들’ 봄호 한국 비평의 현장·지역문인들 문학정신 조명

광주지역의 대표 문예지 ‘문학들’봄호(통권 35호)가 나왔다.



특집으로 다룬 ‘한국 비평의 현장’에서는 비평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김형중의 ‘비평의 확산을 견디는 세 가지 방식’과 박인성의 ‘한 줌의 문학’은 문학의 위기 속에서도 지난해 많은 비평집이 출간되었던 점을 주목, 문학과 비평의 현황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한다.

다른 특집 ‘문학사 들’에서는 이승철 시인이 ‘광주의 문학정신과 그 뿌리를 찾아서’를 주제로 1970년대 반독재 민족문학을 선도한 광주·전남 문인들의

문학 정신을 조명한다. 당대의 폭압적 정치 상황 속에서 삶과 문학의 일치를 실천한 송기숙, 문병란, 양성우, 김준태, 고(故) 김남주의 삶과 문학세계를 아우른다.

‘사물’ 들’에서는 철학자 박규용(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타자의 향기, 소금’을 주제로 절대적인 외로움과 소유욕에서 자신을 구원한 것은 요리였다고 고백하면서 그 요리로 반드시 필요한 소금을 이야기한다.

소수자들의 담론을 소개하는 ‘이야기’ 들’에서는 헤리씨가 성노동자로 살아가는 삶을 ‘관계와 관계’를 통해 들려준다.

이밖에도 김덕희 작가 등 3명의 소설과 김안 시인 등 14명의 시 그리고 함돈균 비평가 등 2명의 평론은 또 다른 읽을거리다.

/박성천기자 skysky@kwangju.co.kr

봄을 깨우다 음미미술관 21일까지 ‘봄 그리고 색채’전



구만재 작 ‘태양을 뜨고 꽃은 피고’

봄을 깨우는 포근한 색채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음미미술관은 오는 21일까지 ‘봄 그리고 색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서양화가 구만재 호남대 예술대학 겸임교수와 호남대 예술대학 출신의 청년 작가들이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특히 산업과 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형태색채의 봄을 선물하는 전시다.

회화를 포함한 파인아트, 패션·뷰티 디자인, 산업 디자인,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20여점이 전시된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따스한 봄날, 멀리 가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친근한 예술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31-5299.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1 시공전 / 단열메이커시트시공
2 단열메이커시트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벨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